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리뷰: 이타주의방정식

이안맥케이

이안맥케이
리뷰: 이타주의방정식
August 15, 2024

원문: <https://anarchism.pageabode.com/review-the-altruism-equation/>, 아카이브:
<https://web.archive.org/web/20250211190028/https://anarchism.pageabode.com/review-the-altruism-equation/>

kr.theanarchistlibrary.org

August 15, 2024

크로포트킨 (Kropotkin) 을 논하는 진화론과 이타주의에 관한 책에 대한 리뷰. 안타깝게도, 보여진 대로, 크로포트킨의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은 결함이 있어서” 상호부조” 와 과학에 대한 그의 기여가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리뷰: 이타주의 방정식

리앨런 듀가킨 (Lee Alan Dugatkin), 『이타주의 방정식: 선의의원을 찾는 7 명의 과학자』 (프린스턴: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 2006)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1859) 이래로 동물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즉, 협력, 이타주의, 윤리입니다. 다윈의 저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는 개별 경쟁이었고, 이로 인해 이모든 것이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윈 자신은 『인간의 유래』 (1871) 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윈의 원칙을 지지하는 영국의 토마스 헨리 헉슬리 (Thomas Henry Huxley) 는 1888 년에 자연을 ‘붉은 이빨과 발톱’ 으로 묘사한 기원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진화와 윤리가 관련이 없다는 개념 (실제로는 반대 개념) 을 설명했습니다. 잘 읽는 무정부주의자라면 알겠지만, 이 글은 크로포트킨이나 헉슬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한 『상호부조: 진화의 요인』 (1902) 이 된 글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크로포트킨의 이름은 동물 협력에 관한 책과 기사에서 때때로 언급되지만, 상호부조와 윤리에 관한 그의 선구적인 연구를 감안할 때 이러한 인정부족은 실망스러우면서도, 상호부조와 그의 무정부주의가 종종 풍자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리앨런 듀가킨의 『The Altruism Equation』 은 이런 종류의 연구의 한 예입니다. 이 책은 크로포트킨, 워더 클라이드 엘리 (Warder Clyde Allee), 윌리엄 데이비드 해밀턴 (William David Hamilton) (책 제목의 ” 이타주의 방정식” 을 만들어냄) 을 포함하여 ” 이타주의” 에 대해 글을 쓴 7 명의 과학자의 삶과 업적을 논의한 후 이 작업이 만들어낸 후속과 학 발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며, 이타주의와 협동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훌륭하게 요약합니다. 진화 생물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 듀가킨은 크로포트킨의 아이디어와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잘 쓰여지고 매력적이지만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력에 대한 심층적인 가정을 합니다 (최소한 일부 과학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그치지만, 전체를 아우르지는 않습니다). 둘째, 듀가킨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전제를 전혀 문제삼

관련이 적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윈의 공헌을 예로 들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악의적이든 무분별하게든) 오용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로포트킨이나 골드처럼 사회적인식을 가진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듀가킨의 책에서 크로포트킨의 정치가 그를 덜 과학적으로만 들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정의된 가정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면의 심할 여지 없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크로포트킨이 자신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공헌을 한 주제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자리매김한 것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사상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점이 많고, 친족관계에 집착하는 태도 역시 가치 있는 주제에 대해 잘 쓰여진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듀가킨은 그의 짧은 저서 『진화의 왕자: 피터 크로포트킨의 과학과 정치에 대한 모험 The Prince of Evolution: Peter Kropotkin's Adventures in Science and Politics』(2011)에서 크로포트킨에 관한 내용을 다시 다루었으며, 이 책과 다양한 저널 기사에서 해당 챕터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유용한 링크가 포함된 크로포트킨 관련 섹션이 있는 웹페이지도 운영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졌으나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관심은 진정성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크로포트킨을 접하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크로포트킨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다른 부분에 결합이 많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말 그대로 최악의 의미에서 비정치적입니다. 셋째, 크로포트킨의 주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합이 가장 심각한데, 듀가킨 주장의 근본 문제는 상호부조(협동)를 이타주의와 동일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크로포트킨이 결코 취한 입장이 아니지만, 독자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크로포트킨은 자신의 저술에서 "이타주의"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호부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을 언급하긴 했지만, 상호부조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개념을 기각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한 바와 같이, **상호부조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또한, 책의 부제부터 그는 상호부조가 "진화의 요인"임을 강조하며 "이기적인" 행동이나 상호투쟁의 존재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간 역사에 대한 서술은 계급투쟁에 반영되듯이 협동적 경향과 경쟁적 경향 사이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듀가킨이 그린 그림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크로포트킨 자신의 입장과 주장에 크게 어긋납니다. 우리는 크로포트킨이 "자연의 매순간이 이타주의를 본다"(13)는 사실을 접하게 되며, 그가 크로포트킨이 "러시아 학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동물 세계에서 "상호부조"의 인정을 올바르게 지적함에 도 불구하고 "이타주의와 협력"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3). 이는 그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는 우리가 지금 이타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때 (41)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한, 그가 크로포트킨에게 "동물 세계에서는 친절과 이타주의가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은 지나치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32).

실제로 크로포트킨은 동물 세계 (인간 포함)가 투쟁의 세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듀가킨이 그에게 부여한 개념을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헉슬리의 자연관은 자연에서 인간에 의해 파괴된 사랑과 평화, 조화를 보았던 루소의 반대견해만큼이나 과학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즉시 지적할 수 있다. 사실... 동물 사회에 대한 첫 번째 관찰은... 자연주의자가 동물의 삶에서 사회 생활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자연에서도 살장만을 보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마치 도살장이 자연에서 조화와 평화만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말이다. 루소는 부리와 발톱 싸움을 생각에서 배제하는 오류를 범했고, 헉슬리는 정반대의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루소의 낙관주의나 헉슬리의 비관주의 모두 자연에 대한 공정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상호부조(-협동-)는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적절한 의미로 이해되는) 동정심도 늑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반추동물이나 말무리가 고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늑대가 사냥을 위해 무리를 이루게 하는 것도 사랑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개인적 동정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감정이다. 이 본능은 극히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서서히 발달해왔으며,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상호부조와 지원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힘과 사회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항상 협력과 도덕성을 구별하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상호부조가 도덕성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으므로 두 개념은 관련이 있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속 생활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교성은 육체적 투쟁의 한계를 만들어 내어, 보다 고차원적인 도덕적 감정이 발전할 여지를 남깁니다... 연민은 사회 생활의 필연적인 산물이지만, 이는 또한 일반적인 지성과 감성의 상당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도덕적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차례로 추가 진화의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도덕성 측면에 관해서 그는 『상호부조』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인류에게 기반을 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동정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입니다. 본능의 단계에 있을 뿐이더라도 인간의 연대에 대한 양심입니다. 그것은 상호부조의 실천에서 각 사람이 발린 힘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이다. 모든 사람의 행복이 서로 밀접하게 의존한다는 인식, 그리고 개인이 다른 모든 개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와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정의감 또는 형평성에 대한 감각이다. 이 광범위하고 필수적인 토대 위에서 더욱 고차원적인 도덕 감정이 발전한다. 하지만 이 주제는 본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상호부조는 대부분의 동물에 의해 실천되었고, 그것이 만들어 낸 사회적 생활은 공평성이나 정의 (어느 정도든) 의 감각을 만들어 냈습니다.¹ 협

¹ 도덕성에 대한 크로포트킨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narchist Morality”, Black Flag Anarchist Review Vol. 4 No. 1 (Spring 2024); Ethics: Origin and Development (Montreal: Black Rose, 1992).

되는 부족조차도 홉스가 제시한 “자연 상태”에 관한 허구와 크게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유전적 설명을 찾는 것은 “중중” 그저 그런 이야기”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과학자가 유충이 어떻게 끔찍한 맛을 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설명할 때 제시한 가장 과한 예 (79-80) 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이타주의”(친족관계에 기반) 와 관련이 있는데, 먹히는 유충은 “형제자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적 이점을 얻는다” 고 설명됩니다. 보통 이타주의가 이타주의자 자신을 희생시키고 다른 이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의를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결국 유충은 포식자의 입으로 뛰어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잡아먹히는 것이며, 여기에는 실제 행위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희생도 없이 그저 우연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이를 “이타주의” 와 동일시하거나 어떻게든 친족관계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류 과학의 너무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불쾌한 측면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눈에 띄게 들어 납니다).

마지막으로, 듀가킨은 “이드라마 (헉슬리와 크로포트킨) 의 등장인물 중 한 명도 이타주의, 협동, 친족관계를 조사하는 실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고 탄핵합니다.(35) 예를 들어, 실험은 다양한 동물 (주로 영장류) 이 공정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는 우연히도 크로포트킨의 주장을 확증해주므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포트킨은 분명 그 한계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실험실과 박물관뿐만 아니라, 숲과 초원, 대초원과 산에서 동물을 연구하자마자, 우리는 다양한 종들 사이에서, 특히 여러 동물 집단 내에서 엄청난 양의 전쟁과 박멸이 일어나고 있음을 즉시 인지하게 된다. 동시에, 같은 종 또는 적어도 같은 사회에 속한 동물들 사이에서는 상호 지원, 상호 부조, 상호 방어가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파 늑대 (alpha wolf)’ 신화는 과학자들이 포획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특정 신화가 지배적인 문화의 가부장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로포트킨은 헉슬리의 인간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주장과 가정을 배제하고, 자연에서의 관찰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기에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객관적인 과학은 우리가 자유롭고 계급이 없는 사회에 살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며, 그때까지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진전은 사회와 가장

돕는것이때로는도덕성과충돌할수도있음을알수있습니다. 연고주의가 나쁜것으로여겨지는데는이유가있습니다. 이는친족관계의영향력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 협력 (심지어이타주의) 이라는것은친족관계의범위를최대한확장해도그보다훨씬더넓게실천된다는점의의미합니다. 친족관계에한정하면일부측면은설명할수있으나, 듀가킨의책이보여주듯 그보다더많은것을알수밖에없습니다.

유아를구하기위해강에뛰어드는예 (73) 가제시되는데, 이는중중누 군가가두자녀, 여덟명의사촌등을구하려는의지를가지고있다는관점으로요약됩니다. 『무정부상태의과학적기초』에대한동반기사에서크로포트킨은 “강속의아이” 사고실험을활용하여, 무정부주의자의윤리에 대한견해 (그가 “평범한사람” 이견지한다고제안하는) 를 “종교적도덕주의자” 와 “공리주의자” 의견해와대조합니다. “평범한사람” 은다음과같이행동합니다:

“그는계산을많이하지않습니다. 하지만그는항상주변사람들의기쁨을느끼고, 다른사람이행복하면자신도행복을느끼며, 다른사람이고통받으면깊이고통받는습관을길렀습니다. 이런식으로행동하는것이그의두번째천성입니다.”⁷

우리는그가만약아이와공유하는유전자의비율을계산한후, 그비율이자신들이신경쓸만한수준이라고판단할때에만뛰어드는‘유전학자’를추가했다면얼마나즐거웠을지를상상할수있습니다. 물론유전적관련성계산이당연히이루어지지않는다는사실을감안하면 (어떻게가능하겠습니까?), 이예시가사용되고그에따른인상이전달되었다는점은부정할수없습니다. 듀가킨은자신의책에서친족관계가이타주의와단순협력의발생에미치는중요성을반복해서강조합니다. 그런데이것이계층적, 자본주의적체제에서만들어진문화적전제와너무잘맞아떨어진다는사실은거의의문시되지않거나언급되지도않습니다.

듀가킨은“홉스적추측”과가족및부족의본질에관한크로포트킨의논평을오해한듯합니다 (30). 현대인류학이“사냥채집사회, 집단, 마을은종종대가족구성원으로이루어져있다”(30) 고결론내린것은크로포트킨이주장한요점과모순되지않습니다. 그가밝힌바와같이, “동물학과고인류학은가족이아니라우리가가장초기의사회생활형태였다는데동의한다.”이는실제로대가족일수도있으나, 확실히홉스와헉슬리가인류의기원 (그이상은아니더라도) 으로거슬러투사한즉, 중세이후의가족과는전혀다릅니다. 크로포트킨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듯이, 그는 “현대적 의미의가족” 에대해이야기한것이아닙니다. 듀가킨은대가족으로간주

력과이타주의, 선함과이타주의를혼합함으로써듀가킨은크로포트킨의실제입장을모호하게만듭니다. 이는매우안타까운일입니다.

이는과학자들사이의현대논쟁을반영하는것일수있는데, 오늘날과 학자들은협력적이며이타적인행위를“현대진화생물학에서일반적으로, 다른사람에게이익을주면서도그행위를수행하는개체에게는비용이발생하는행동”으로정의하기때문에, 크로포트킨의견해와는다른입장을취할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습니다.(28) 그러나듀가킨은각주에서 “이타주의의정확한정의에대하여전히논쟁이있다”고인정하며, 게임이론에서는“협력과이타주의”를“행위자에게비용이들고다른사람에게이익이되는행동”으로정의하는반면, 다른맥락에서는협력을“관련된모든 당사자에게이익을주는측면에서엄격하게정의하여, 협력자의보상에는비용이아니라이익이수반된다”고설명합니다.(156-7)

크로포트킨은그러한잘못된가정을하지않고오히려협동 (상호부조) 이종과개인모두에게이익이된다고지적합니다. 결국종은개별생물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입니다. 『상호부조』에서그는두번째정의를분명히, 그리고당연하게가정하고있습니다:

“상호부조는상호투쟁만큼이나동물의삶의법칙이지만, 진화의요소로서그것은아마도훨씬더큰중요성을가질것입니다. 왜냐하면이것이종의유지와추가발전을보장하는습관과 특성의발달을촉진하고, 개인의복지와삶의즐거움을최대 높이며에너지낭비를최소화하기때문입니다.”

듀가킨이왜첫번째정의를채택하는지에대해서는설명되지않으며, 그와크로포트킨의정의차이와그결과에대해서도언급하지않습니다. 의심할여지없이, 이결정은듀가킨의문화적·계급적관점을반영한정치적 선택이었는데, 그가이를의식하지못했다하더라도말입니다. 이는그가 “시베리아에서크로포트킨은그지역의동물과농민모두에게서이타주의와협동처럼보이는현상을관찰했습니다. 동물들은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연합합니다.”(26) 라고말할때도드러납니다. 왜‘보이는’것일까요? 늑대무리가함께사냥하고사냥감을나누는것은명백한협동입니다. 마찬가지로무리동물들이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함께행동하는것도협동입니다. 생존 (더나아가번영) 을위해함께행동하는것을‘비용’으로표현하는것은다소이념적인것처럼보입니다. 그렇다면늑대무리생활에서부담하는‘비용’은무엇일까요? 혼자사냥했다면결코얻지못했을음식을나누는것일까요? 이것이개별동물에게 “비용” 이라는것은확실히자본주의사회에서발달한문화적가정을반영하는것이아닐까요?

따라서크로포트킨이 “혈연관계가거의역할을하지않는이타주의의보루로서자연을단호하게방어” 한것은단순히사실이아닙니다.(13) 그

⁷ “The Coming Anarchy”. The Nineteenth Century (August 1887), 163.

는자연이어떻게협력과사회적삶의보루였는지에대한질문서화된설명을제시했습니다. 게다가크로포트킨은자신의작업을다윈의작업과연결하려고애썼으며, 협력은개인과그자손의생존을보장하는데도움이되므로자연선택에의해선택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 듀가킨은크로포트킨이다윈이그의『인간의유래』(1871)에서제시한견해를반복하고있다는어색한사실을훑어보며, 그결과자신이헉슬리보다더나은다윈주의자라고생각한다는것을분명히했습니다. 이점이『상호부조』에서언급되었다는점을고려하면-실제로다윈이인용되었습니다(“가장동조적인구성원이가장많이포함된공동체가가장잘번성하고가장많은자손을키울것이다”[다윈]가 썼다)-실제로이에대한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

따라서크로포트킨이“혈연관계가거의역할을하지않는이타주의의보루로서자연을단호하게방어”한것은단순히사실이아닙니다.(13) 그는자연이협력과사회적삶의보루였음을질문서화하여설명했습니다. 게다가크로포트킨은자신의주장을다윈의이론과연결시키기위해애썼는데, 이는협력이개인과그자손의생존을보장하여자연선택에유리하게작용하기때문이라고주장한것입니다. 듀가킨은크로포트킨이다윈이『인간의유래』(1871)에서제시한견해를반복하고있다는어색한사실을간과하며, 그결과자신이헉슬리보다더나은다윈주의자라고생각했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 이점이『상호부조』에서언급되었으며-실제로『종의기원』에서다윈의말을인용(“[다윈은] ‘가장동조적인구성원이가장많이포함된공동체가가장잘번성하고가장많은자손을키울것이다’라고 썼다)-이에대한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

이내용은헉슬리와크로포트킨을다루는“다윈의불독대진화의왕자”장에서무시됩니다. 그장에서듀가킨은헉슬리가“도덕주의자의관점에서볼때동물세계는검투사의쇼와거의동일한수준이다”라며, “가족이라는한정된관계를넘어, 각자가모든이에맞서싸우는흙스적전쟁이정상적인존재상태이다”라고선언한것에대해크로포트킨이얼마나당황했는지를이야기합니다.(12) 크로포트킨은이를“끔찍한기사”(13)로여겼고, 이를반박하기위해『상호부조』가된글들을 썼습니다.

듀가킨은헉슬리의입장에분명히공감하지만, 자신의주장을판단할만한“그런증거를독자에게제시하지않았다”는점과“국가적선택이어떻게작동해야하는지, 그리고동등하게, 아니더중요하게도, 자신의삶의경험과가장좋아하는철학자토마스말서스(Thomas Malthus)의연구에근거해결론에도달한것 같다”는점을인정합니다.(18) 후반부에서듀가킨은“동물싸움이치명적인전술을수반하는경우가매우드물다는사실-즉, 동물은생식성공률을높일자원을놓고경쟁할때검투사처럼죽을때까지싸우지않는다”는점도인정합니다.(112) 그러나그는이사실을“헉슬리의 1888년에세이에서검투사언급이헉슬리에대한유가아니라문자그대로의의미”라는자신의메모와연결시키지않습니다.(17)

야한다. 왜냐하면장기적으로볼때, 연대의실천이포식적성향을지닌개체의발달보다종전체에훨씬더유리하기때문이다. 가장교활하고가장영리한개체들은사회적삶과상호지원의이점을이해하는개체들을위해제거된다.”라고설명합니다. 이는시간이지남에따라사회적본능과과정성감각의진화를가져올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생활은그에상응하는사회적감정, 특히집단적정의감이습관으로자리잡지않는한완전히불가능할것이란분명합니다. 만약모든개체가자신의이점을끊임없이남용하고, 다른이들이피해자에게개입하지않는다면, 어떤사회도존재할수없을것입니다. 그리고정의감은어느정도모든사회적동물에게서발달합니다.”

크로포트킨이“같은종의구성원을포함하는거의모든종류의행동은이타주의를구성한다”고생각한것은여기서끝납니다.(28) 그는다른사람을착취하려는사람들에대항하여협력을강제해야할필요성을잘알고있었습니다. 이는듀가킨이크로포트킨의사상을묘사한것과는거의맞지 않지만, ‘이에’는이‘의’핵심 측면, 즉협력적행동은보상을받고이기적행동은처벌받는다는점을선행하고예측합니다. 시간이지남에따라(반복적상호작용) 사회적생활에서협력이확산될것입니다. 특히내부적으로흙스주의적인집단은애초에존재할수있다하더라도, 금방멸종할것이기때문입니다.

또한헉슬리와마찬가지로, 듀가킨역시인간이어떻게본성을극복하고비혈연집단내에서협력을실천하며윤리를발전시킬수있었던방법을설명하지않습니다. 크로포트킨이조롱했듯, 헉슬리의주장은마치신의불꽃이존재하며, 자연선택이동물과인간의삶의본질적인측면들을설명하지못한다는것을암시했습니다.⁶ 상호부조는반드시“좋은”것일필요는없습니다. 사냥에서늑대의협력은그들에게는이익이되지만먹이에게는그렇지않습니다(마찬가지로, 무리동물의상호부조는그들에게이익을주지만, 사냥꾼은배고프게됩니다). 이러한협력을유도하는것은이타주의(일반적으로말하는의미의)가아니라, 적대적인세상에서살아남기위한것입니다. 비록이협력이공정성과정의감을낳고, 나아가공감과이타주의를불러일으키긴하지만, 생존의필요에의해죽도되는것을막을수는없습니다. 윤리의진화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현시점에서, 헉슬리가아닌크로포트킨이진정한선구자임을알수있습니다.

듀가킨은-헉슬리와는달리-“가족구성원간의이타주의”가“인간도덕성의기초중하나”(117)라고주장하는데, 잠시만생각해보면가족을

⁶ Peter Kropotkin, “Justice and Morality”, Black Flag Anarchist Review Vol. 3 No. 3 (Autumn 2023).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이나 아닙니다. 이는 인류를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한 논의 (127-9)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논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유전적 결정론보다 확실히 더 크다는 점을 드러내어, 유전자 수준 분석 자체의 한계를 우연히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선택이 얼마나 일관되게 더 광범위한 사회적으로 요인을 반영하는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r 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비용과 편익에 대해 수치적 값을 할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듀가킨은 친족 관계에서 ‘이타주의’ 의 뿌리를 찾고자 하지만, 동시에 죄수의 딜레마와 그것이 비혈연 동물의 협동적 행동의 진화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이에는이 (tit-for-tat)”라는 개념으로 이어진 과정을 논의합니다. (143-5) 그러나 그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개체들이 “이에는이” 유전자를 공유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그 유전자의 “형제 자매”라고 제안합니다. 유전자는 “다른 ... 개체에 있는 자신의 사본을 도울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일종의 친척”인 셈입니다. (146)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인간이 고양이와 개와는 90% 이상의 유전자를, 침팬지와는 98~99% 의 유전자를 공유하며, 두 인간은 유전적으로 99.9% 유사하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약화시킵니다. 자손의 관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0% 씩 DNA 를 물려받지만, 그 두 세트의 유전자는 거의 동일하며 비혈연인들 사이에서도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에는이”가 협동 (또는 이타주의) 을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복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에는이” 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친족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유전자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이타주의가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련 유전자는 이타주의적 개인의 비용과 관계없이 복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전자 수준의 관점은 그것이 반대하기 위해 등장했던 “집단 선택”과 유사한 결론에도 달하는데, 즉 개별 동물이 다른 동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⁵

“이에는이 (tit-for-tat)” (또는 로버트 트리버스의 용어를 사용하면 “호혜적 이타주의”) 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인들이 협력 하되, 타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크로포트킨은 상호 원조가 상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협조적인 동물은 “적,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대상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사회적 본능이 계속 존재하더라도 ... 자연 선택은 이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⁵ 크로포트킨은 집단 선택 주의자 (“종에 유익하다”) 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는 협력력이 관련된 개별 동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는 집단이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상향식 (bottom-up)’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조 (역자주: 서로 돕는 것) 입니다.

왜 증거가 아닌 단순한 주장에 근거한 글, 그리고 그 주요은 유가 근거 없음을 인정받은 글에 대해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듀가킨은 크로포트킨이 아니라 헉슬리가 옳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헉슬리의 증거 부족은 지나가면서 간단히 언급되는 반면, 크로포트킨이 제시한 반대 증거는 “자주 끝이 없고 횡설수설하는 단락에서 상호보조로 본 것에 대한 긴 일련의 예를 늘어놓는” “목록식으로 나열된 예들”처럼 일축됩니다. (28) 또한 “크로포트킨은 뛰어난 자연주의자였으며, 그의 시베리아 관찰 결과 다수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28) 라는 사실도 인정되지만, 이는 크로포트킨의 “관찰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열정적인 정치적인 견해의 해체 색되었다” (35) 는 점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현재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과학자들은 그의 견해에 언급되는 반면, 그들의 논평이 현재 체제의 전제를 반영할 경우에는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크로포트킨과 알리 (웨이커 교도이자 평화주의자) 의 정치적 견해는 비교적 자세 히 다루어져, 이들이 과학적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주지만, 보다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다른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헉슬리의 증거 없는 추측은 별다른 비판 없이 넘어가지만, 해밀턴은 (147) “정치적 올바름이 ... 난폭해졌다”라고 느꼈으며, 여성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 성차별적 견해를 가졌고 (이에 대해 듀가킨의 해명은 실로 우물합니다), 때로는 “우생학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유아 살해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기도 한다.” (94) 라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치적이 라고 간주되지 않으며 그의 과학을 왜곡한다고 고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면, 헉슬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태도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수집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등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말을 떠올려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체가 객관적 사업이라는 신화를 비판하는 것이 옳으며, 과학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제약을 벗어 던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에만 과학이 제대로 수행된다 ... 과학자들이 삶의 만연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자신의 계층이나 문화를 명시적으로 옹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인식하면 과학은 “순수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의 작업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 대담한 인간의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사람이 해야 하므로 “사회에 내재된 활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조차도 “순수하고 깨끗한 정보”가 아니라, “문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는 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이론은 사실에서 불가피하게 도출된 귀납이 아니라, 가장 창의적인 이론들은 종종 사실 위에 덧씌워진 상상력 풍부한 비전이며, 상상력의 원천 역시 강하게 문화적이다.” 과학은 “그 호기심이

린변증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변문화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그것을 지탱하는 전제들의 심하고 심지어 뒤집는 강력한 도구 가 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내재한 문화적 전제를 규명하고, 만약 다른 주장이 적용된다면 어떤 대답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질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과학자들은 놀란 동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전제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창의적인 이론을 제안할 수 있다.”²

이 내용은 듀가킨이 그의 책에서 서술한 역사에 해당합니다. 그는 크로포트킨에 관한 장에서 다니엘 P. 토데스 (Daniel P. Todes) 의 『Darwin Without Malthus』 를 올바르게 인용하지만, 토데스가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 러시아의 지식인 및 과학계에서 환영받았던 반면, 다윈의 맬서스주의적 가정은 그가 속한 사회와 “자신의 계급, 서클, 가족의 이념적 관점을 공유했다는 당연한 사실”의 산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만약 독자가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저자의 이념적 선입견을 부르주아적, 맬서스주의적, 또는 어쩌면 전형적인 영국식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³ 반면 듀가킨은 “맬서스주의 교리가 왜 영국에서 빠르게 널리 받아들여졌는지”(20) 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이 지배계급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계급의 관점은 다르면서도 별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밀턴의 작품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밀턴 작품의 겉보기 “비정치적” 성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크로포트킨의 정치적 입장은 그가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더 넓은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통찰력을 제공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크로포트킨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흔히 쓰이는 “장밋빛 안경”이라는 비유를 적용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옳지 않다고 놓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듀가킨은 헉슬리가 인류가 “자원보다 더 빨리 번식한다”(18) 는 맬서스적 개념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그리고 “빠른 증식이 자원이 부족할 때 모든 이에 대한 흡수적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그의 확신이 그를 도덕성에 대한 지침을 찾기 위해 진화론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회상합니다. (21) 헉슬리 자신은 맬서스의 “결론은 결코 반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반증되지 않을 것이다”(21) 라고 인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맬서스가 다윈의 사상에 미친 영향도 언급되지만, 이후 몇 년간 이러한 주장들이 반박되었다는 어색한 사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듀가킨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크로포트킨은 이 책에 인용된 글 (31) 에서 이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생계 수단과 편의 수단의 인공적 생산을 위해 협력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법칙은 맬서스의 법칙과는 정반대이다. 생계 수단과 편의 수단의 축적은 인구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⁴

이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맬서스가 악명 높은 저서를 썼을 때 인구가 8 억명이었고, 지금은 거의 80 억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은 발생하지만, 이는 생산 부족 (정반대)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내의 분배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듀가킨이 헉슬리의 주장이 (계급) 편견이 아니냐는 것에 근거한 것처럼 헉슬리를 인용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크로포트킨의 정치관은 그에게 명백한 것, 즉 “비정치적” 인사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크로포트킨의 과학적 신임이 그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다는 의심받는 반면, 그의 정치적 입장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로서 크로포트킨은 “국가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소규모 집단으로 살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돕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었다” 고 전해집니다. (31) 하지만 크로포트킨은 적절한 규모의 집단 연합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상했으며, 소규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집단은 작을 수 있지만, 모든 집단이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모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를 가진 현대 국가만이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는 주장 (32) 은 기껏해야 불완전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자인 크로포트킨은 사유 재산과 그로 인한 불평등 또한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크로포트킨은 현대 국가와 자본주의가 서로 얽혀 있음을 강조하며, 둘 다 반대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된) 정치적 권력을 없애고 동시에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듀가킨은 “사회주의 이전 무정부주의” (13) 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이타주의 방정식” 자체는 어떨까요? 해밀턴의 규칙은 “자연선택은 $r \times b > c$ 일 때마다 이타주의 유전자를 선호한다 (95)” 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타주의의 비용 (c) 은 해당 유전자를 보유할 확률 (r) 이 낮은 혈족이 얻는 혜택 (b) 과 균형을 이룹니다. 듀가킨은 “해밀턴의 규칙에서 b 와 c 항의 영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었다” (148) 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혜택과 비용이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고, 따라서 인간의

² The Mismeasure of Man (Penguin, 1981), 21-3.

³ Daniel P. Todes, Darwin Without Malthus: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Russian Evolutionary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3.

⁴ “The Scientific Basis of Anarchy”. The Nineteenth Century (February 1887), 246. 이 기사는 이에 상응하는 기사인 “The Coming Anarchy” (The Nineteenth Century, August 1887) 와 함께 나중에 개정되어 팜플렛 pamphlet Anarchist Communism: Its Basis and Principles (1891) 으로 출판되었습니다.